

연구실

앤스로픽 간판 제품, 스무 명이 만들었다

앤스로픽 공동창업자 벤 만이 이끄는 사내 실험팀 '랩스' 이야기예요. 클로드 코드도 여기서 한 사람이 시작했어요.



연구실 · 앤스로픽 간판 제품, 스무 명이 만들었다

이 팀은 2024년부터 회사 안에 있었지만 이름이 바깥에 알려진 건 최근이에요. 앤스로픽은 2026년 1월 13일 회사 블로그에 「랩스를 소개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런 팀이 있다는 사실과 누가 이끄는지를 처음 밝혔어요. 그 글에서 인스타그램 공동창업자인 마이크 크리거가 최고제품책임자 자리에서 내려와 벤 만과 함께 랩스를 이끌게 됐고, 나머지 제품 조직은 이미 보라가 맡는다고 알렸어요.

랩스가 하는 일 자체는 단순해요. 클로드가 겨우 할 수 있게 된 일을 먼저 제품으로 만들어 보고,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초기 사용자에게 내놓고, 반응이 오는 것만 제대로 된 제품으로 키워요. 다니엘라 아모데이 사장은 랩스를 알리면서 AI 가 나아가는 속도가 만드는 방식과 조직을 짜는 방식까지 다르게 요구한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결재 단계예요. 회사가 커지면 새 제품 하나를 만들 때도 기획서를 쓰고 승인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랩스는 그 절차 없이 먼저 만들어 볼 수 있는 자리로 일부러 비워 뒀어요. 그래서 이 팀이 내놓은 목록에는 회사의 다른 조직이라면 통과시키지 않았을 물건이 섞여 있어요.



델, AI서버 주문 609억달러로 분기 기록 세웠다

풀어서 설명하면, MCP 는 AI 가 회사 안의 여러 프로그램과 자료에 같은 방식으로 연결되도록 정한 약속이에요. 어댑터 규격이 하나로 정해지면 콘센트마다 다른 플러그를 꽂지 않아도 되는 것과 비슷해요.

지금 앤스로픽 매출의 큰 축이 된 클로드 코드도 처음에

보내요. 2025년 여름 기준으로 엔지니어 한 명이 하루 다섯 건 정도의 폴 리퀘스트를 올렸어요.

팀이 두 배로 커졌을 때 처리량이 67% 늘어난 것도 눈에 띄어요. 사람이 늘면 새 사람을 가르치느라 속도가 잠깐 느려지는 게 보통인데, 여기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도구가 사람을 태우는 시간을 줄여 준 결과라고 팀은 설명해요.

기술 선택에도 이유가 있어요. 타입스크립트와 리액트를 고른 건 모델이 가장 잘 아는 언어이기 때문이고, 그 덕에 클로드 코드의 약 90% 를 클로드 코드가 직접 썼어요. 벤만은 9월 공개 발언에서 이 팀 코드의 95% 를 클로드가 쓴다고 말했어요.

그렇다고 아무 제한 없이 말기는 건 아니예요. 보리스 체르니는 클로드 코드를 돌렸다고 해서 사용자 허락 없이 시스템을 바꾸면 안 된다는 원칙을 못 박았어요. 모델에게 일을 넘기는 팀일수록 넘기지 않을 것을 먼저 정해 둔다는 이야기예요.

이 목록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대목은 첫 사용자가 누구였느냐예요. 클로드 코드의 첫 시장은 외부 개발자가 아니라 앤스로픽 자기 엔지니어였어요. 만든 사람이 매일 그 도구로 일하니가 불편한 곳이 회의 자료가 아니라 그날의 작업으로 드러났고, 기능 하나를 두고 이를 만에 화면 시간을 스무 개 넘게 만들어 본 사례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랩스가 내놓은 것은 클로드 코드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스킴즈와 크롬용 클로드, 그리고 2026년 1월 12일에 나온 코워크가 같은 팀에서 나왔어요. 코워크는 「리서치 프리뷰」라는 꼬리표를 달고 나왔는데, 아직 완성품이 아니니 써 보고 의견을 달라는 뜻이에요. 넷 다 완성된 상태로 나온 게 아니라 다듬어지지 않은 채 먼저 나왔고, 쓰는 사람이 붙은 쪽만 제품으로 굳어졌어요.

그 꼬리표 자체가 순서를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장치

탈 영역을 파고드는 연구, 우정과 가족관계·소속감·공감 능력 등 사회성 발달을 다루는 연구, 이용 시간이나 목적·나이·문화·언어·경제적 배경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피는 연구, 그리고 보호 장치나 연령별 설계, AI 리터러시 교육, 부모·교사 지원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예요. 아동·청소년 발달학, 심리학, 공중보건,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학, 사회학, 인류학, 데이터과학, AI 안전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팀을 받기며, 정성·정량·실험·관찰·이론·참여형 등 방법론도 가리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 만큼 조건이 까다로워요. 신청자는 소속 기관이나 독립적인 윤리 심사 절차, 연령에 맞는 동의·승낙 확보 방법, 참가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 위해나 위기 징후가 발견됐을 때의 대응 절차, 민감한 개인·행동·정신건강 정보를 다루는지 여부, 연구팀이 갖춘 아동 발달·임상·보호 관련 전문성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 민감한 정보를 다룬다고 해서 곧바로 탈락하는 건 아니지만, 추가 윤리 심사와 전문성,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오픈AI는 설명했어요.

신청서는 한 페이지 이내의 프로젝트 개요, 최대 세 페이지의 연구 제안서, 일정과 예산, 예산 근거, 연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위험 요인, 윤리·보호 계획, 연구팀 소개, 이해상충 공개 항목을 구글독스 형식으로 담아 영어로 제출해야 해요. 다만 연구 자체는 어떤 언어로 진행해도 상관없어요. 심사는 과학적 엄밀성, 공공 담론과의 관련성, 제안서의 명료함, 정책·제품·규제에 실제로 반영될 가능성, 윤리·보호 조치의 충분성, 실행 가능성, 연구팀의 역량, 다양한 집단과 맥락을 포괄하는 정도, 기존 증거와의 보완성, 그리고 오픈AI에 유리한 결과가 아니어도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는 독립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고 해요.

챗GPT를 활용한 연구, 여러 분야가 섞인 연구팀, 대표성이 낮은 인구집단이나 지역을 다루는 연구, 단기·중기 정책 결정에 곧바로 쓸 수 있는 연구에는 가산점이 붙어요. 지원

오늘 지면

- 연구실
앤스로픽 간판 제품, 스무 명이 만들었다
- AI
제미니AI 대학생 무료 1년, 결제수단 등록이 조건이다
- AI
딥마인드, 인간 게놈 변이 90억개 전부 점수 매겼다
- 비즈니스
오픈AI, 자체 추론칩 할라피노 연내 투입
- 비즈니스
오픈AI, 청소년 AI 영향 연구에 500만달러 지원
- 비즈니스
델, AI서버 주문 609억달러로 분기 기록 세웠다



AI 설계 신약, 노화 시계 6개서 '3년 젊어져'



UBS 신입 뱅커 채용에 AI 능력 이 들어갔다

이 지면은 2026년 9월 9일 수요일 아침 구독자 메일함으로 나간 레터를 신문 판형으로 다시 조판한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metallab.ai 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오픈AI, 자체 추론칩 할라피노 연내 투입

오픈AI 최고재무책임자 새라 프라이어가 9월 8일 회사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자체 추론칩 "할라피노"를 연내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어요. 소비자나 기업 양쪽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서로를 밀어주고, 그 돈으로 다시 컴퓨트와 연구에 투자하는 구조가 오픈AI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는 설명인데, 이번 글에서 처음 공개된 칩 성능 수치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어요. 이 글은 새 모델 발표가 아니라 회사 카테고리에 올라온 전략 세이예요. 프라

▶ 2면에 계속

AI

제미니AI 대학생 무료 1년, 결제수단 등록이 조건이다



구글코리아가 지난 8월20일 대학생을 겨냥해 내놓은 제미니AI 무료 혜택은 언뜻 보면 '1년 완전 무료'처럼 들려요. 그런데 2026년 9월8일 실제로 접속해 확인한 공식 신청 페이지에는 조금 다른 문구가 붙어 있어요. 가입할 때 유효한 결제수단을 등록해야 하고, 사전에 취소하지 않으면 무료 체험이 끝난 뒤 Google AI Plus에서 월 7,500원이 자동으로 청구된다는 안내예요. 대학생이라면 이 조건을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나중에 통장에서 예상 못한 금액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AI

딥마인드, 인간 게놈 변이 90억개 전부 점수 매겼다



구글 딥마인드가 인간 게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단일 염기 변이의 영향을 미리 계산해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묶은 AlphaGenome Atlas를 공개했어요. 대상은 인간 DNA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한 글자짜리 변화, 약 90억 가지예요. 전체 용량은 1페타바이트에 이르고, 각 변이마다 얼마나 해로운지를 보여주는 AlphaGenome Variant Impact, 줄여서 AVI 점수를 매겨 뒀다고 해요. 이 자료는 전 세계 연구자에게 공개돼 있고, 단백질질을 만드는 코딩 영역과 그렇지 않은 비코딩 영역의 변이를 모두 조화할 수 있어요.

풀어서 설명하면, 사람의 DNA는 A-T-G-C 네 종류 염기가 약 30억 쌍 이어진 서열이에요. 이 중 어느 한 글자만 다른 글자로 바뀌는 경우의 수를 모두 세면 90억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이 변이 하나하나가 실제로 병을 일으키는 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어요. AVI 점수는 알파지놈 모델이 내놓는 복잡한 예측값을 하나의 숫자로 압축해, 어떤 변이가 위험한지 연구자가 곧바로 가능하게 해주는 지표예요.

◀ 1면에서 계속

AI

제미나이 대학생 무료 1년, 결제수단 등록이 조건이다



- 1 구글코리아가 지난 8월20일 발표한 대학생 대상 Google AI Plus 무료 혜택은 만18세 이상 재학생이 SheerID 인증을 거쳐 개인 계정으로 신청하는 구조예요
- 2 2026년 9월8일 확인한 공식 페이지에는 가입 시 결제수단 등록이 필요하고 취소하지 않으면 무료 종료 후 월 7,500원이 자동 청구된다는 고지가 있어요
- 3 가족 그룹 구성원과 학교 발급 Workspace for Education 계정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청 자체는 2026년 12월31일까지 가능해요

풀어서 설명하면, 이번에 무료로 풀리는 건 구글의 여러 유료 등급 가운데 Google AI Plus예요. 더 비싼 상위 등급인 Google AI Pro의 학생 할인은 이번 무료 혜택과는 별개 상품이라 가격도 조건도 달라요. SheerID는 구글이 실제 재학 여부를 확인할 때 쓰는 외부 학생 인증 서비스로, 학교 이메일이나 학적 정보를 넣어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신청 자격은 생각보다 세세하게 정해져 있어요. Google AI 학생 혜택 약관을 보면 만18세 이상이면서 지원되는 국가나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어야 하고, SheerID를 통한 학생 인증에 성공해야 해요. 여기에 개인 Google 계정과, 결제수단이 등록된 Google Payments 계정도 필요해요. 반대로 학교에서 발급받은 Workspace for Education 계정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가족 그룹 구성원이나 기업 구매자, 할인된 픽셀 번들 구독자, Google Fi 같은 제3자 경로로 이미 Google One을 쓰고 있는 이용자, 보호자가 관리하는 감독 대상 계정도 대상에서 빠져요.

가족 그룹에 속해 있다면 특히 유의할 부분이에요. 약관상 가족 그룹 구성원은 이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요. 다만 이 혜택 하나만 보고 무조건 가족 그룹을 탈퇴할 필요는 없어요. 탈퇴하면 다른 가족 공유 구독이나 저장공간 공유에 영향이 갈 수 있으니, 그 부분은 본인 계정에서 따로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게 안전해요.

◀ 1면에서 계속

AI

딥마인드, 인간 게놈 변이 90억개 전부 점수 매겼다



- 1 구글 딥마인드가 인간 게놈에서 가능한 모든 단일 염기 변이 약 90억 개의 영향을 미리 계산한 AlphaGenome Atlas를 공개했어요
- 2 각 변이에는 위험도를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AlphaGenome Variant Impact(AVI) 점수가 매겨져 있고, 크기는 1페타바이트에 달해요
- 3 코딩·비코딩 영역을 모두 포함해 전 세계 연구자에게 열려 있지만, 임상 진단·치료 용으로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못박았어요

알파지놈은 게놈 서열의 한 구간을 입력값으로 받아, 그 안에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세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모델이에요. 영국 엑서터대학교에서 전장유전체 서열 분석을 연구하는 개러스 호크스 강사는 영상에서 사람이 모든 염기쌍을 1초씩만 들여다봐도 다 읽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고 설명해요. 인구유전체센터의 유전체 분

석가 샘 브라이언 역시 30억 쌍에 담긴 지침이 서로 어떻게 얹히는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요.

문제는 알파지놈이 변이 하나마다 내놓는 예측값이 1만 개에 가까운 숫자 묶음이라는 점이었어요. 팀은 이를 단일 지표인 AVI 점수로 정리해, 영향이 큰 변이일수록 높은 점수가 매겨지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방대한 후보군을 훨씬 작은 범위로 좁혀 실제로 문제가 되는 변이를 찾기 쉬워진다고 해요. AlphaGenome Atlas는 이 점수를 담은 1페타바이트짜리 데이터베이스이면서, 동시에 코드를 다루지 못하는 생물학자도 웹 화면에서 특정 염색체나 세포 유형별로 변이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게놈 브라우저이기도 해요.

다만 구글 딥마인드는 이 점수가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단, 치료를 대신할 수 없고 임상 용도로 검증되거나 승인받은 적이 없다고 못박아 뒀어요. 연구팀은 이번 아틀라스에 이어 알파폴드와 알파지놈처럼 서로 다른 전문 모델을 하나의 에이전트 체계로 묶어, 과학자들이 인류가 마주한 더 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자세한 배경은 알파지놈 아틀라스 소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1면에서 계속

비즈니스

오픈AI, 자체 추론칩 할라피노 연내 투입



- 1 오픈AI 최고재무책임자 새라 프라이어가 9월 8일 블로그에서 자체 추론칩 '할라피노'를 연내 배치하겠다고 밝혔어요
- 2 InferenceX 테스트에서 상용 시스템 대비 와트당 토큰 처리량 1.5~1.9배 높고, 지연시간 1.7~3.6배 낮은 성능을 확인했다고 전했어요
- 3 주간 활성 사용자 10억 명, 기업 고객 250만 곳을 발판 삼아 소비자·기업 매출이 서로를 밀어주는 구조라고 설명했어요

풀어서 설명하면, 오픈AI는 지난 9월 3일 새 모델 GPT-6 아스트라를 공개했고, 이 모델은 이를 전 오픈AI 자체 기준으로 사이버보안 '치명적' 등급을 받은 첫 사례이기도 해요. 또 오픈AI 리서치팀은 이미 사람 노동 하루당 에이전트 노동 3.1일을 쓴다는 수치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번 글은 이 두 소식을 다시 인용하면서, 자체 추론칩 할라피노까지 더해 오픈AI가 매출과 비용을 어떻게 함께 관리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프라이어가 제시한 규모부터 보면, 챗GPT와 오픈GPT 워크, 코덱스를 합쳐 주간 활성 사용자가 10억 명을 넘고 기업 고객은 250만 곳에 이른다고 해요. 개인 사용자를 추적한 자체 연구에서는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일일 메시지량이 첫 한 달보다 약 50% 늘었고, 사용자가 시도해 본 작업 종류도 약 두 배로 늘었다고 전했어요. 광고 기반 무료 이용으로 AI의 쓸모를 처음 알게 하고, 이후 구독과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지출을 늘리게 하는 구조가 이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에요.

비용 쪽 수치도 함께 나왔어요. GPT-5.6 SoI이 프로덕션 서빙 소프트웨어 개선에 쓰이면서 종단 간 서빙 비용을 20% 줄였고, 추가 개선으로 토큰 생성 효율이 15% 이상 높아졌다고 밝혔어요. 같은 컴퓨터로 더 많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게 됐다는 뜻인데, 이런 소프트웨어 단의 절감이 하드웨어 단의 절감과 맞물리면서 이번 글의 핵심 소식인 할라피노로 이어져요.

비즈니스

오픈AI, 청소년 AI 영향 연구에 500만달러 지원

13~17세 대상 독립 연구에 프로젝트당 최대 100만달러, 10월 6일까지 신청 받아요



- 1 오픈AI가 생성형 AI가 13~17세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독립 연구에 500만달러를 지원해요
- 2 프로젝트당 최대 100만달러까지 지원하며 9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신청을 받고 11월 13일까지 결과를 통보해요
- 3 지난달 청소년용 챗GPT 출시와 캘리포니아 청소년 AI 안전법 지지 선언에 이은 후속 조치예요

오픈AI가 13세부터 17세까지 청소년에게 생성형 AI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독립 연구에 500만달러를 걸었어요. 프로젝트 하나당 최대 100만달러까지 지원하며, 오늘부터 10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요. 오픈AI가 직접 연구하는 대신 외부 연구자에게 돈을 대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이번 지원 사업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오픈AI는 지난달 18일 13~17세 전용 챗GPT를 내놓으면서 공부 모드와 부모 통제 기능을 함께 엮었고,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캘리포니아의 청소년 AI 안전법 SB 1119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어요.

풀어서 설명하면, 오픈AI는 지난달 18일 13~17세 전용 챗GPT를 내놓았고 곧이어 캘리포니아의 청소년 AI 안전법 SB 1119를 지지한다고 밝혔어요. 이번 연구비 지원은 그 뒤를 이어, 규제 논의에 참고할 근거 자료를 외부 연구자에게서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어요.

비즈니스

델, AI서버 주문 609억달러로 분기 기록 세웠다

기업들이 AI를 클라우드에서 자체 서버로 옮기는 온프레미스 전환에서 델이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어요



- 1 델 테크놀로지스 분기 매출이 전년비 58% 늘어난 470억달러, 조정 EPS는 7.04달러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어요
- 2 단일 분기 AI서버 주문이 609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고 백로그도 950억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어요
- 3 기업들이 AI를 하이퍼스케일러 클라우드 대신 자체 서버로 옮기는 온프레미스 전환이 델의 실적으로 확인됐어요

델 테크놀로지스가 지난주 공개한 실적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8% 늘어난 470억달러를 기록했어요. 조정 주당순이익은 7.04달러로 시장이 예상했던 4.90달러 안팎을 크게 웃돌았고요. 단일 분기 AI서버 주문이 609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고, 백로그도 950억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을 남기며 분기를 마감했어요. 델은 이 기세를 반영해 연간 매출 전망을 250억달러 올려 1920억달러로 잡았는데, 전년 대비 약 70% 성장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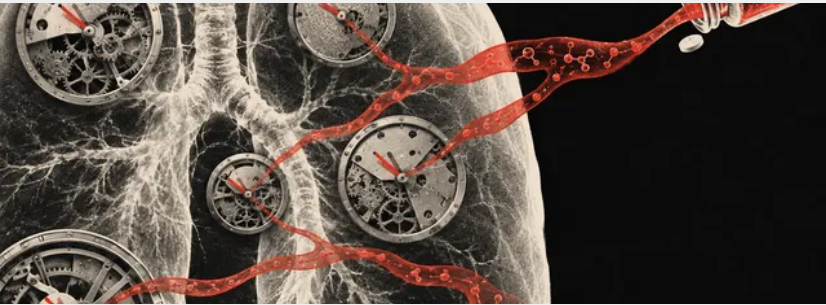
풀어서 설명하면, 이번 실적이 보여준 진짜 흐름은 기업들이 AI를 돌리는 장소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회사들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의 클라우드 서버를 빌려 AI를 훈련하고 돌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작업을 자기 건물 안, 자기가 사서 소유한 서버로 옮기고 있어요. 이걸 온프레미스라고 부르고, 델은 바로 이 온프레미스 서버를 만들어 파는 회사예요.

시장이 그동안 델을 보는 시선은 박했어요. 델을 부품이나 조립하는 레거시 PC 제조사로 취급했고, 그래서 다른 AI 관련 기업들보다 낮은 주가 배수, 심지어 S&P500 평균보다도 낮은 배수로 거래됐어요. 하지만 이번 실적은 그 회의적 시선이 숫자로 반박됐다는 걸 보여줬어요. AI 인프라를 실제로 물리적으로 굴리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를 하이퍼스케일러와 기업 양쪽에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델이었거든요.

AI

AI 설계 신약, 노화 시계 6개서 '3년 젊어져'

인실리코 메디슨이 AI로 설계한 폐섬유증 치료제 렌토서팁을 12주 복용한 환자들 의 생물학적 나이가 노화 시계 여섯 개 모두에서 낮아졌고, 많게는 3년 넘게 젊어졌어요. 약을 만든 것도 AI, 효과를 켜 것도 AI인데, 이 숫자를 얼마나 믿어도 될까요.



- 인실리코 메디슨이 AI로 설계한 IPF 치료제 렌토서팁의 2a상 데이터를 여섯 가지 단백질 노화 시계로 분석한 논문을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발표했어요.
- 단백질 분석 대상 42명에서 여섯 시계 모두 투약군의 예측 나이가 낮아졌고, 위 약 대비 54개 비교 중 21개가 유의미했으며 효과는 4주 차에 물렸어요. 60mg 하루 한 번 군은 4주 차에 시계 네 개가 2.71~3.46년 젊어졌다고 계산했어요.
- 표본이 작고 IPF 환자만 대상이라 건강한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질병 임상에서 노화 지표를 동시에 재는 설계가 앞으로 표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와요.

폐 질환 치료제를 시험하다가 뜻밖의 숫자를 발견한 회사가 있어요. AI로 신약을 설계하는 인실리코 메디슨(Insilico Medicine)이 7일(현지시간) 학술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낸 논문인데요, 자기들이 AI로 설계한 약 렌토서팁(rentosertib)을 12주 복용한 환자들의 혈액을 여섯 가지 노화 시계로 재 봤더니 예측 나이가 줄어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뉴욕타임스가 같은 날 이 연구를 AI로 만든 약이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초기 데이터라고 보도하면서 화제가 됐고요.

이야기의 시작은 지난해예요. 인실리코는 특발성 폐섬유증(IPF) 환자를 대상으로 렌토서팁의 2a상 임상을 했고, 폐 안의 공기 용량이 유의미하게 늘었다는 결과를 얻었어요. IPF는 폐의 알츠하이머라고도 불리는 병인데요, 폐 조직이 두꺼워지고 흉터가 생겨 산소를 혈액으로 넘기는 힘이 떨어지고, 몇 년 안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만성 질환이에요. 그 임상은 원래 폐를 고치려고 한 시험이었죠.

그런데 인실리코는 처음부터 한 가지를 더 심어 뒀어요. 알렉스 자보론코프 CEO는 뉴욕타임스에 이 약을 "환자의 수명을 전반적으로 늘리려는 목적도 갖고" 설계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폐 검사와는 별도로 투약 전후 환자의 혈액에서 단백질을 재 두었던 거예요. 논문에 따르면 임상에 등록된 71명 가운데 단백질 분석에 동의한 42명의 혈청에서 2,841개 단백질을 측정했고, 그 데이터를 여섯 개의 노화 시계에 넣었어요.

비즈니스

UBS 신입 뱅커 채용에 AI 능력이 들어갔다

UBS 가 2027년 대졸·인턴 채용부터 AI 활용 능력을 요구해요. AI 를 써 봤다가 아니라 무엇을 넣어 결과가 어떻게 나아졌는지 설명해야 해요.



- UBS 가 2027년 글로벌 뱅킹·마켓 부문 대졸 공채와 인턴 채용에 AI 활용 능력을 요건으로 넣었어요.
- 면접에서 실제 사용 사례를 묻고, 합격자는 AI 플루언시 패스웨이 교육을 받아요.
- 신입 채용을 줄이는 대신 문턱을 올린 방식이라 다른 은행들의 기준도 함께 움직일 수 있어요.

스위스 은행 UBS 가 신입 투자은행 인력을 뽑을 때 AI 활용 능력을 요구하기로 했어요. 파이낸셜타임스는 UBS 가 2027년 글로벌 뱅킹·마켓 부문, 그러니까 기업 자금 조달과 주식·채권 거래를 맡는 투자은행 쪽 대졸 공채와 인턴 채용부터 이 조건을 적용한다고 전했어요. 대형 금융회사가 AI 활용 능력을 채용 요건으로 못 박은 첫 사례급이에요.

기준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에요. 챗GPT 를 써 봤다는 수준으로는 안 되고, 어떤 일을 했고 AI 에 무엇을 줬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면접에서도 실제로 어떤 도구를 어떻게 썼는지 묻는 질문이 들어가요.

풀어서 설명하면, 주니어 뱅커는 자료를 모으고 숫자를 맞추고 발표 자료를 만드는 일을 도맡는 입사 초년 인력이에요. 지금 AI 가 가장 빠르게 대신하고 있는 일이 정확히 그 목록이에요.

AI

AI로 폰 유체 난제, 발표 전날 걸려온 전화

뉴욕대 수학자가 AI 도움으로 오일러 방정식 폭발을 증명하고, 발표 직전 오픈AI 와 나눈 통화를 성명으로 공개했어요. 저자에서 앤스로픽 소속 동료들 빼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적었어요.



- 트리스탄 버크마스터와 레벤트 알피계가 클로드·코덱스 등의 도움으로 부시네스크·3차원 오일러 방정식의 유한시간 폭발을 증명했다고 밝혔어요.
- 버크마스터는 9월 6일 오픈AI 와의 통화에서 앤스로픽 소속 알피계를 저자에서 빼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성명에 적었어요.
- 그는 누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과 시점을 적을 뿐이라고 했고, 오픈AI 의 공개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뉴욕대 쿰란트연구소의 수학자 트리스탄 버크마스터가 9월 7일 공개 성명을 내고 AI 의 도움으로 얻은 유체 방정식 증명과 그 발표 직전에 오픈AI 와 나눈 통화 내용을 함께 밝혔어요. 증명 자체도 큰 소식이지만, 성명의 절반은 AI 연구소들이 수학 성과를 두고 어떻게 경쟁하는지를 드러내는 기록이에요.

증명은 버크마스터와 앤스로픽에 재직 중인 수학자 레벤트 알피계가 개인 자격으로 함께 한 연구예요. 두 사람은 앤스로픽의 클로드와 오픈AI 의 코덱스, GPT-5.6 솔, 아스트라의 도움을 받아, 매끄러운 강제항을 가진 다공성 매질 방정식과 부시네스크 방정식, 3차원 비압축 오일러 방정식에서 유한시간 폭발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어요. 성명에 따르면 부시네스크와 오일러 결과는 8월 15일에 나왔고, AI 가 쓴 증명을 8월 22일 형식 검증 도구 린으로 확인했어요.

풀어서 설명하면, 유한시간 폭발은 방정식이 그리는 흐름이 어느 순간 무한대로 치솟아 식 자체가 더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예요.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는 100년 넘게 풀리지 않은 문제예요.

비즈니스

증권사가 AI 에이전트에 계좌를 열었다

이토로와 무무, 로빈후드가 올봄 클로드와 코덱스 같은 AI 에이전트가 직접 주문을 넣는 전용 창구를 잇달아 열었어요. 코드를 몰라도 말로 전략을 시키는 시대, 계좌 열쇠를 어디까지 넘겨야 할까요.



오늘 나온 어려운 말 풀이 전문은 metallab.ai/glossary

쉬어야یدی SheerID 학생이나 교사 같은 특정 자격을 학교 이메일이나 학적 정보로 확인해주는 외부 신원 인증 서비스	구글 AI 프로 Google AI Pro 구글이 제공하는 유료 AI 구독 등급 중 하나로, 더 저렴한 Google AI Plus보다 상위 요금제다.	제미나이 옴니 Gemini Omni 구글의 유료 구독 등급 Google AI Plus에 포함된 제미나이 이용 권한 중 하나로 언급되는 항목이다	구글 AI 플러스 Google AI Plus 구글이 제공하는 유료 AI 구독 등급 중 하나로, 제미나이 이용 한도 확대와 클라우드 저장공간 등을 묶어 제공한다.
--	---	--	--

오늘 해볼 것

오늘 지면에 나온 것 중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5가지

1 구글 AI 프로

Google AI Pro
구글이 제공하는 유료 AI 구독 등급 중 하나로, 더 저렴한 Google AI Plus보다 상위 요금제다.
이 게 원 데
구글 AI 프로는 구글이 파는 여러 층짜리 유료 구독권 가운데 가장 위쪽에 있는 요금제다. 같은 구글 원 계열 안에 더 저렴한 Google AI Plus가 있고, 그 위에 Google AI Pro가 자리하는 식으로 등급이 나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구글코리아가 2026년 8월에 대학생 대상으로 내놓은 1년 무료 혜택은 이 상위 등급인 구글 AI 프로가 아니라 한 단계 아래인 Google AI Plus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구글 AI 프로도 별도의 학생 할인 상품을 두고 있지만, 가격과 조건이 무료로 풀린 Plus 혜택과는 다르다. 즉 이름이 비슷하다고 두 요금제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해 보려면
자신이 구글 계정에서 어떤 요금제를 쓰고 있는지 헷갈린다면, 구글 원 계정의 결제·구독 관리 화면에 들어가 현재 가입된 요금제 이름이 Google AI Plus인지 Google AI Pro인지부터 확인해보자. 두 요금제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가격과 혜택 범위가 다르므로, 무료 체험이나 할인 안내를 받았다면 정확히 어느 등급에 적용되는 내용인지 문구를 한 번 더 읽어보는 게 좋다.
오늘 지면에서 — 제미나이 대학생 무료 1년, 결제수단 등록이 조건이다

2 워크스페이스 포 에듀케이션

Workspace for Education
학교가 재학생과 교직원에게 발급하는 구글의 교육기관용 계정 서비스
이 게 원 데
워크스페이스 포 에듀케이션은 학교가 학생과 교직원에게 나눠주는 구글 계정이다. 회사가 직원에게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발급하는 것과 비슷하게, 학교가 학번이나 학교 이메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주는 계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계정은 평소 개인이 쓰는 구글 계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계정을 만든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학교이기 때문에, 결제수단 등록이나 구독 신청 같은 개인 단위 절차에서는 제약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학교 정책이 바뀌면 계정 자체가 사라지거나 접근이 막힐 수도 있다.
그래서 구글이 개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놓은 할인이나 무료 혜택은 대체로 이 학교 발급 계정이 아니라, 학생이 평소 쓰는 개인 구글 계정을 기준으로 신청받는다.
해 보려면
내 구글 계정이 개인 계정인지 학교 발급 계정인지 헷갈린다면, 계정 설정 화면에서 계정을 만든 주체를 확인해보자. 학교나 회사가 관리하는 계정에는 보통 '이 계정은 조직에서 관리합니다' 같은 안내 문구가 뜬다. 이런 문구가 보인다면 개인 명의로 새로 만든 구글 계정을 따로 준비해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오늘 지면에서 — 제미나이 대학생 무료 1년, 결제수단 등록이 조건이다

3 스킬즈

Skills
클로드가 특정 작업을 할 때 따를 절차를 참고 자료를 미리 묶어 두었다가 불러 쓰게 하는 앤스로픽의 기능이다.
이 게 원 데
스킬즈는 클로드에게 어떤 일을 할 때 따라야 할 순서와 참고 자료를 미리 적어 둔 설명서 묶음을 건네주는 기능이다. 요리사에게 레시피 카드를 건네주면 다음에도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자주 반복하는 작업의 절차를 한 번 정리해 두면 클로드가 그 절차를 따라 일한다.
이 기능은 앤스로픽 안에서 새 제품을 실험하는 작은 사내 조직이 만들었다. 이 조직은 클로드가 개발자들 사이에서 매일 쓰는 도구들을 여럿 내놓았는데, 스킬즈도 그 가운데 하나로 소개됐다. 회사의 다른 큰 조직처럼 여러 단계 승인을 거치지 않고, 초기 사용자에게 먼저 내놓아 반응을 본 뒤 다듬어진 제품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스킬즈는 그때그때 다르게 써 주는 지시문과 달리, 한 번 정리해 둔 절차를 여러 번 다시 불러 쓸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다르다. 매번 같은 설명을 반복해서 써 주지 않아도, 저장해 둔 스킬을 부르면 클로드가 그 순서대로 작업한다.
해 보려면
클로드에게 반복하는 작업 하나를 골라 이렇게 요청해 본다: "보고서를 쓸 때마다 이런 순서와 형식을 따르는 스킬을 만들어 줘"라고 절차를 적어 저장을 부탁한 뒤, 다음번에 비슷한 작업을 시켜 클로드가 저장해 둔 절차를 실제로 따르는지 확인해 본다.
오늘 지면에서 — 앤스로픽 간판 제품, 스무 명이 만들었다

4 알파지놈 변이 영향도

AlphaGenome Variant Impact
유전자에서 한 글자만 바뀐 변이가 얼마나 해로운지 보여주는 단일 점수
이 게 원 데
알파지놈 변이 영향도(AVI)는 사람의 DNA에서 글자 하나가 바뀐 변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숫자 하나로 알려주는 점수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피 검사만 해도 수십 가지 수치가 나오지만, 결국 의사가 중요한 몇 가지만 짚어 종합 소견을 알려주는 것과 비슷하다.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알파지놈이라는 모델은 변이 하나를 살펴볼 때마다 1만 개에 가까운 복잡한 예측값 뭉치를 쏟아낸다. 이 값들을 사람이 일일이 뜯어보기는 어려워서, 연구팀은 이를 하나의 점수로 압축했다. 그 점수가 높을수록 그 변이가 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이다.
구글 딥마인드는 사람 DNA에서 나올 수 있는 한 글자짜리 변화 전부, 약 90억 가지에 이 점수를 미리 매겨 하나의 자료로 묶었다. 그 결과 연구자는 자기가 궁금한 변이 하나를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이미 계산된 점수를 조회하는 것만으로 위험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
해 보려면

쉬어아이디
SheerID
쉬어아이디는 어떤 사람이 대학생이나 교사처럼 특정 자격을 갖췄는지 대신 확인해주는 인증 업체다. 구글 같은 기업이 학생 할인을 내놓을 때, 신청자가 진짜 재학생인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확인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쉬어아이디에 검증을 맡기고, 이용자는 학교 이메일이나 학적 정보를 입력해 이 업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놀이공원 학생 할인 창구에서 학생증을 보여주고 도장을 받는 절차를 떠올리면 된다. 다만 그 창구가 놀이공원 직원이 아니라 별도로 계약된 검증 회사인 셈이다. 제미나이 대학생 무료 혜택처럼 신청 절차 중간에 쉬어아이디 인증 단계가 끼어 있다면, 이 단계를 통과해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결제 조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 옴니
Gemini Omni
제미나이 옴니는 구글의 유료 AI 구독 등급인 Google AI Plus 혜택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는 항목이다. 이름 앞에 붙은 옴니라는 말은 보통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룬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구글이 이 항목으로 정확히 어떤 화면이나 기능을 제공하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확인되는 건 늘어난 이용 한도, 400GB 클라우드 저장공간 같은 다른 혜택 항목들과 나란히 이름만 목록에 올라 있다는 점이다.
대중에게 이 용어가 눈에 된 계기는 구글코리아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Google AI Plus 요금제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하면서다. 이 발표문에 제미나이 옴니 이용 권한이 혜택 항목 중 하나로 적혀 있어서, 학생이 이 요금제를 무료로 쓰는 동안 옴니라는 이름의 무언가도 함께 쓸 수 있다는 정도만 알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입력과 출력을 지원하고 어디서 켜고 끄는지는 재료가 나와 있지 않아, 이 항목에서 그 이상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구글 AI 플러스
Google AI Plus
구글 AI 플러스는 구글이 파는 AI 구독 상품 중 하나다. 넷플릭스에 여러 요금제가 있듯 구글도 AI 서비스를 무료 버전과 여러 유료 등급으로 나눠 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상품이다.
이 요금제를 구독하면 무료 버전보다 챗봇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이용 한도, 넉넉한 클라우드 저장공간, 텍스트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입력을 함께 다루는 기능 이용 권한이 묶음으로 딸려온다. 즉 챗봇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저장공간과 부가 기능까지 한 번에 사는 구조다.
구글의 가격표에는 이보다 더 비싸고 혜택이 큰 상위 등급이 따로 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두 등급은 가격과 제공 내용이 다른 별개 상품이라, 어떤 이벤트나 할인이 어느 등급을 대상으로 하는지 이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알파지놈

AlphaGenome
알파지놈은 유전자 서열의 한 구간을 입력하면, 그 안에서 글자 하나가 바뀌었을 때 세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미리 계산해 주는 AI다. 사람의 DNA는 네 종류 글자가 약 30억 쌍 이어진 아주 긴 설명서 같은 건데, 이 설명서의 한 글자만 오타처럼 바뀌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그 오타 하나하나가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지 사람이 직접 확인하기엔 서열이 너무 길고 복잡하다는 점이다. 알파지놈은 이 오타 하나를 넣으면 그로 인해 세포 안에서 일어날 법한 변화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여준다.
다만 알파지놈이 한 번에 내놓는 결과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만 개 가까운 값이 뒤섞인 복잡한 묶음이다. 그래서 연구팀은 이 묶음을 위험도를 나타내는 점수 하나로 압축해, 인간 DNA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한 글자짜리 변화 90억 가지에 미리 매겨 하나의 거대한 자료로 공개했다. 코드를 다룰 줄 몰라도 웹 화면에서 특정 부위나 세포 종류별로 이 점수를 찾아볼 수 있게 만든 것도 이 작업의 핵심이다.
다만 이 점수는 어디까지나 연구용 참고 자료다. 구글 딥마인드는 이 결과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고, 임상용으로 검증되거나 승인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노화 시계

aging clock
노화 시계는 혈액 속 단백질 같은 생체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사람의 몸이 실제로 몇 살처럼 늙었는가」를 추정하는 AI 모델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주행거리계와 정비사의 차이와 비슷해요. 주행거리계는 「몇 년 탔는지」만 알려 주지만, 정비사는 엔진 소리와 타이어 마모를 보고 그 차가 실제로 얼마나 낡았는지 따로 판단하잖아요. 노화 시계는 주민등록상 나이 대신 몸이 스스로 말해 주는 나이를 계산해요.
이 모델은 수많은 사람의 혈액 검사 데이터를 학습해서, 어떤 단백질 수치 조합이 젊은 몸과 늙은 몸을 가르는지 패턴을 찾아내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만드는 방식에 따라 다른 시계가 다른 숫자를 내놓을 수 있는데요, 여러 시계가 동시에 같은 방향(예: 나이가 줄었다)을 가리키면 그 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는 신호로 봐요.

AVI 점수

AlphaGenome Variant Impact score
AVI 점수는 사람 DNA에서 글자 하나가 다른 글자로 바뀌었을 때, 그 변화가 몸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하나의 숫자로 알려주는 점수다. 도서관에 있는 책 한 페이지에서 글자 하나가 오타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어떤 오타는 뜻이 전혀 안 바뀌지만 어떤 오타는 문장 전체를 망가뜨린다. AVI 점수는 이런 오타 하나하나에 위험도 딱지를 붙여주는 셈이다.
원래 이 위험도를 알아내려면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예측 모델을 돌려 변이 하나마다 1만 개에 가까운 복잡한 숫자 뭉치를 받아야 했다. 연구팀은 이 뭉치를 사람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점수 하나로 압축했고, 그렇게 나온 게 AVI 점수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 변이가 세포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 점수 덕분에 연구자는 사람 DNA에서 나올 수 있는 90억 가지 변이 전체를 미리 계산된 표에서 조회만 해도 된다. 다만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참고용 우선순위 지표일 뿐, 병을 진단하거나 치료법을 정하는 데 쓸 수 있는 의학적 판정은 아니다.

알파지놈 아틀라스

AlphaGenome Atlas
알파지놈 아틀라스는 사람 DNA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한 글자짜리 변화, 약 90억 가지 각각에 대해 얼마나 해로운지 점수를 미리 매겨 놓은 거대한 참고 자료다. 마치 지도책에서 특정 위치를 찾으면 바로 정보가 나오듯, 연구자가 관심 있는 변이 하나를 검색하면 별도 계산 없이 곧바로 위험도 점수를 볼 수 있다.
사람의 DNA는 네 종류 글자가 약 30억 쌍 이어진 서열인데, 그중 어느 한 글자만 바뀌는 경우의 수를 다 세면 90억 가지가 나온다. 예전에는 특정 변이 하나가 실제로 병을 일으키는지 알아내려면 그때그때 복잡한 계산 프로그램을 돌려야 했지만, 구글 딥마인드는 이 90억 가지 경우를 모두 미리 계산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묶었다. 각 변이에는 AVI라는 점수가 붙어 있어, 숫자가 높을수록 더 위험한 변이라는 뜻이다.
이 자료는 용량이 1페타바이트에 달하지만 전 세계 연구자에게 무료로 공개돼 있고, 코드를 다루지 못하는 생물학자도 웹 화면에서 염색체나 세포 종류별로 변이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구글 딥마인드는 이 점수가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다고 못박아 왔다.